

트럼프 “중국 유학생 60만명 받겠다” 대학 생존과 직결 이유, “차라리 대학 폐쇄” 반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인 유학생에게 최대 60만 건의 학생비자 발급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국면에서 “그들의 학생들이 미국에 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60만 명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오지 못한다면 미국 대학 시스템은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에게도 중국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신중하게 점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 유학생들이 빠질 경우 “하위 15% 대학은 유지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중국 유학생 유입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학들의 생존에 직결돼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보수 성향 정치인과 논객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에 충성할 수도 있는 중국 학생 60만 명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 때문에 15% 대학이 망한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민개혁연맹(FAIR) 조 채텀 국장은 “중국 같은 적대국 출신 외국인을 교육하는 것은 미국인보다 외국인을 앞세우는 것”이라며, 산업 스파이·지적재산권 탈취 우려를 제기했다.

보수 논객 리즈 윌러는 “중국 학생들은 모두 간첩”이라며 전면 금지를 주장했고, “하버드 같은 대학은 미국 청년들을 혁명적 마르크시스트로 세뇌하고 있다. 차라리 대학을 폐쇄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수 언론인 키라 데이비스, 작가 라이언 기르두스키 등도 “차라리 대학 15%가 무너져도 괜찮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판단에 동의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60만 명을 받지 않으면 하위 대학들이 무너진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팟캐스트 진행자 조슈아 레이드는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최상위 인재들이며, 장차 중국의 지도자·과학자·혁신가가 될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미국 문화와 기술을 체득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전략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80% 지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중단 연방정부 조치에 35만 가구 전력 공급 계획 차질

트럼프 행정부가 로드아일랜드 해안 인근에서 80% 이상 완공된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켰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에 핵심적이라 평가받는 해상풍력 산업을 행정부가 계속 압박하는 조치다.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가 추진 중인 레블루선 윈드 프로젝트는 65기 중 45기의 터빈이 이미 설치된 상태였다. 수년간 연방·주 정부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은 지난달 22일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 우려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태양광·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바보 같

은 시대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는 화석연료 산업을 우선시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 지역 반발과 법적 대응 움직임

로드아일랜드 덴 매키 주지사와 코네티컷 네드 라몬트 주지사는 즉각 반발하며 “레블루선 윈드 중단 결정을 뒤집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탈 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수백 명의 숙련 노동자가 일하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임의적으로 중단됐다”며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스테드는 재정적 피해를 평가 중이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레블루선 윈드는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 최초의 상업 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로, 35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육상 부지가 협소한 양 주의 기후 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었던 만큼 충격은 크다.

현재 미국에서 완전히 가동 중인 대형 해상풍력 발전소는 단 한 곳뿐이며, 풍력은 전력 생산의 약 10%를 차지한다. 에릭 밀리토 해양산업협회 회장은 “미국은 오일·가스뿐 아니라 풍력과 신기술 등 모든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찬반 논란 가열

환경단체 내추럴 리소스 디펜스 카운슬

(NRDC)은 “정부가 오염 심한 석탄을 삼리고 미래 에너지인 태양광·풍력을 막고 있다”며 “잘못된 결정의 대가를 모든 미국인이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해상풍력 반대 단체 그린 오션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로드아일랜드와 매사추세츠 앞바다의 섬세한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뉴욕의 엠파이어 윈드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중단 사례다. 다만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과 상원의원 척 슈머가 개입하자 해당 프로젝트는 재개된 바 있어, 레블루선 윈드도 향후 정치적·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용문루

GRAND OPENING

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
Eat Good, Feel Good











홈 파티 케이터링 환영

* * *

각종 파티 및
단체 모임 환영

파티룸 10~50명 수용 가능

* * *

용문루 T.626.363.4961

www.yongmoonlu.com

월,수,목,금 11:30am ~ 3:00pm
4:30pm ~ 9:00pm

토,일 11:30am ~ 9:00pm

19240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